



## 안전벨트! 내 생명 부탁해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수와 함께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에 달한다는 발표는 교통지옥의 불명예로 또다시 안겨왔다.

하루 평균 600여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약 1,000명이 부상, 20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그에 따른 인명 손실도 엄청나다.

이에 교통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인 안전벨트 미착용을 집중 관리하여 다시는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20명 가까이 탑승자가 숨을 거두었다. 이 사고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재고개에서 초등학교 55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0m 아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했던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2명만 크게 다치고 나머지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는 운전을 함에 있어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여러 사고를 통해 밝혀진 안전벨트의 효능은 실로 엄청나다.

이외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상률은 1.5배, 실신 등 머리 부상은 8.4배, 골절상은 2.7배, 피부열상은 2.8배나 높아진다. 또한, 병원 입원확률은 3배, 입원 일수는 2.6배, 병원비 지출은 3.3배로 증가한다.

달리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나 어떤 물체와 충돌했을 때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

다. 50km/h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그 충격력은 승차자 체중의 30~50배나 되는 운동가 속도로 전환되어 보통 성인의 경우 코끼리의 무게와 같은 약 3.5톤의 힘을 받는다. 보통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자신의 손이나 발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속도가 7km/h라는 점을 착안한다면 보통 우리가 운전하는 속도가 매우 위험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조장치일 뿐이다.

요즘은 사고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ABS 브레이크나 에어백 등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어백 등의 안전장비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안전벨트의 보조장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비해 8% 가량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

람들에 비해 사고시 사망률은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안전벨트를 매고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사망률을 68% 감소시킨다.

■ 뒷좌석은 4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에 대한 위험성이 잘 인식되지 않고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안전벨트는 앞좌석의 탑승자와 마찬가지로 뒷좌석의 탑승자에게도 꼭 착용해야 하는 필수품이다.

일반적으로 앞시트가 뒷좌석 탑승자를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고 발생시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객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시트는 꺾이고 이때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가해지는 충격은 배를 더하게 된다.

■ 임산부에게도 안전벨트는 필수

임산부들은 보통 태아에게 미칠 충격을 걱정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태아가 사망하는 것은 직접적인 충격보다 태반이 자궁벽에서 분리돼 충분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태아는 자궁과 양수 등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시 태아의 사망과 부상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임산부의 사망 또는 부상인 것으로 나타나 태아의 안전은 임산부의 안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벨트는 배가 직접 조여지지 않도록 하체쪽 벨트는 복부 아래 허벅지가 시작되는 골반 부위에 매고 상체쪽 벨트는 가슴 사이

에 오도록 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벨트는 차가 정지한 후에 풀어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에서 안전벨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착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푸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목적지 반경 4km 이내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다 왔다'는 헤이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교통사고가 흔하다는 말이다.

사고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목적지에 다다랐더라도 서행을 한다면 최소 20km/h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20km/h의 속도를 매우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도를 초속으로 바꾸면 5.6m/s로, 1초동안 5.6m나 나가는 엄청난 속도이다.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

- 안전벨트를 벨 때는 시트 깊숙이 허리를 걸친다.
- 상체쪽 벨트는 쇄골 부분을 지나도록 한다. 안전벨트가 목을 지나면 사고시 목을 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허리쪽 벨트는 요골부위에 착용한다. 복부에 감으면 사고시 내장파열 등으로 2차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가방이나 아이를 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고시 가방이나 아이가 튀어나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벨트는 꼬이지 않게, 팽팽하게 맨다.